

“커뮤니티의 안전과 투명한 시정 운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NLMUSD 위원장 ‘애나 발렌시아’, 놀워크 시의원 출마

‘놀워크-라미라다 통합 교육구 (Norwalk La Mirada Unified School District, NLMUSD)의 애나 발렌시아 교육위원장(사진)이 놀워크 시의원에 도전한다. 애나 발렌시아 후보는 커뮤니티의 안전과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01년 11월, NLMUSD 교육위원으로 처음 선출된 애나 발렌시아는 이후 4선을 하였다. 현재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교육 운동가로 그리고, NLMUSD 교육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애나 발렌시아 후보는 “그동안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역사회 참여를 밑거름 삼아 시의 발전과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미초아칸 지방에서 태어난 애나 발렌시아 후보는 5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캘스테이트 엘에이(CSULA)에서 사회학과 비즈니스를 전공했다. 대학교 졸업 후 홈리스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을 돕는 기관에서 사회 복지 부문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인권과 헌법 센터(Center for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Law)에 스카우트 되어 홈리스 청소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Homeless Youth Program Coordinator)가 되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홈리스 청소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다가 친구들의 권유와 추천으로 1996년 가을에 로스엔젤레스 교육구의 교사가 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놀워크-라미라다 통합 교육구 교육 위원회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교사 직을 그만 두고 로스엔젤레스 교사 노조인 UTLA(United Teachers Union Los Angeles)에 참여해 임원으로 근무했다. 2011년에 다시 중학교 교사로 교직에 돌아 왔으며 현재까지 체스터 니미츠중학교에서 가르치면서 NLMUSD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애나 발렌시아 후보는 UTLA 근무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UTLA에서는 임원으로 일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습니다. 교육 전반에 걸쳐 소신과 철학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노조 지도자로서 리더십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맡아 했던 일은 지역, 주 정부, 연방정부 차원의 공교육을 대변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해 정치적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했고 또 국제관계 일도 맡아 했습니다.”

UTLA에서의 경험은 NLMUSD 교육위원으로 일하는 데에도 밑거름이 됐다.

애나 발렌시아 후보는 “NLMUSD 교육위원회는 전체 교육구의 관리 책임과 의무를 지는 기관으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내려 오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마련해 주고 교사 및 교육구 직원들의 고용과 해고를 관리하며, 교육구 내의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여 전체적인 교육구의 원활한 운영을 돕습니다.” 라며 “행정적인 일 외에 교육구 내에서 발생한 어떤 이슈가 일선 현장인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교육위원회가 개입해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가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노력은 결국 시와 주민들간의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라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 운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애나 발렌시아 후보는 교육자로서 3 C를 강조해 왔다. 3 C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협조(Cooperation), 그리고 협력(Collaboration)이다. 그는 3C가 잘 이루어진다면 교육에 있어서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시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정 운영자들과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협조, 협력하면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며 “주민 참여 없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가 더 나은 도시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 재정, 의사결정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며 시의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의정 참여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애나 발렌시아 후보는 커뮤니티의 안전도 역설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 도시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된다면 늘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 안전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며 시의회에 입성한다면 무엇보다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사장님, 힘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313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